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 · 나약함 버려 중도를 지켜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6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0월 20일)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군부 강탈 봉은사 경내지 매각 무효…환지본처를”

조계종, 한전 상대 소송 판결 앞두고 기자회견

‘1970년 매각 부지=경내지’ 입증
“舊불교재산관리법상 위법 조치”
“주지 승인없는 강탈” 문제 제기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봉은사 경내지였던 옛 한국전력부지(현 현대차 GBC부지) 매각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자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2월 24일 봉은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 판결을 앞두고 한전부지 환수 및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1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 정권에 의해 당시 봉은사 주지 동의를 생략하는 등 강압적으로 강탈한 봉은사 토지는 환지본처해야 한다”며 “당시 불교재산관리법상 사찰 경내지인 토지가 매각된 것은 허가여부 및 취득시효와 관련 없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봉은사 토지는 1970~1971년 제3공화국 당시 군사정권의 압력 속에 국가 발전을 명분으로 정부청사 이전 목적 하에 반강제로 매각된 곳이다. 3차례에 걸쳐 상공부 종합청사건립위원회 등에 매매된 규모는 14만 5491평에 달한다.

당시 봉은사 주지였던 서운 스님이 토지 처분을 거부하자 총무원장이 주지를 해임하고 스스로 봉은사 주지로 취임하는 등 졸속절차를 거쳤다. 군사정권 실세인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조계종 신도회장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였다. 당시 상공부는 봉은사 주변의 사찰 소유 토지를 매입했고, 이 부지는 환지(換地) 작업을 통해 현재 한전 부지로 자리가 바뀌었다. 한전 설립과 운영을 위해 1984년 1월 한전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한전은 해당 부지를 사옥부지로 활용하다 현대차그룹에 넘겼다.

삼보정재를 강탈당한 불교계는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한전의 토지사용을 인내해 왔지만 한전이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자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조계종과 봉은사는 2007년 12월 한전을 상대로 ‘제3자 매각 부당’을 주장하며 환수를 요청했고, 2016년 한전부지환수위원회를 꾸리고 봉은사 토지 되찾기에 돌입했다. 2020년 한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해 1심 판결이 12월 24일 선고예정이다.

조계종은 이날 주지 승인 없는 토지 강탈 등 그동안의 주장에 더해 당시 불교자산을 총괄하는 불교재산관리법을 위배한 사실도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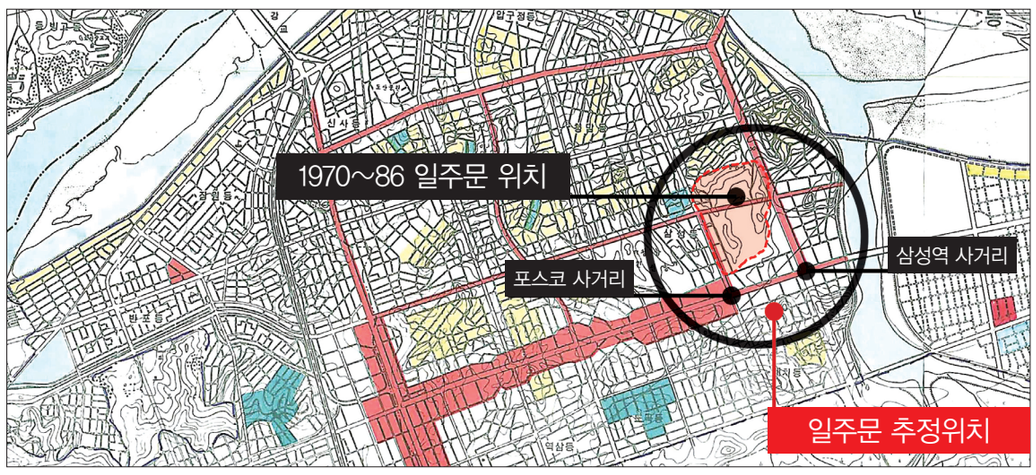
당시 봉은사 일주문의 위치를 분석해, 매각된 봉은사 토지가 사찰 운영에 필수적인 경내지였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조계종은 1950년대 봉은사 일주문 사진과 1970년 전후 기록, 봉은사에 주석한 흥교 스님 진술을 토대로 1970년과 1971년 봉은사 일주문의 위치가 삼성역 남쪽인 대명중학교 인근임을 밝혀냈다.

특히, 조계종은 1952년 故 임인식 사진작가가 촬영한 봉은사 일주문 사진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한 추정결과 현재 봉은사 일주문에서 남쪽으로 1km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사찰 운영에 필수적인 경내지를 처분하는 것을 금지한 당시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르면 매각절차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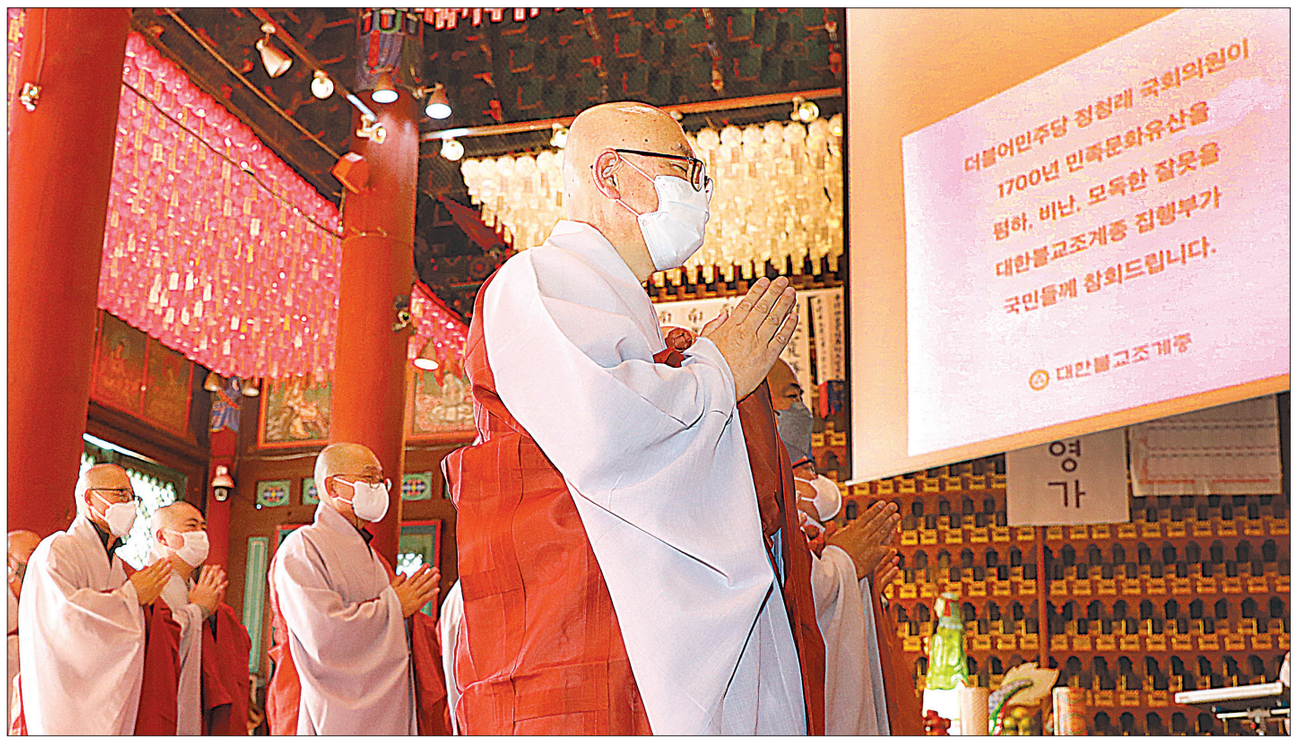
소송을 맡고 있는 김종복 변호사는 “일주문부터의 경내지에는 조선시대 승과고시를 보던 승과평과 불교예법을 가르친 소나무숲, 봉은사 스님들의 요사채 등이 있는 사하촌이 포진돼 있다”며 “당시 관할청의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매각 절차는 무효다. 여기에 봉은사 주지 서운 스님의 동의 없는 사찰재산 처분행위인 점과, 토지 처분 및 전환 2차 허가의 경우 관할청 허가가 없는 졸속 처분 행위는 원소유자인 봉은사의 권리회복이 타당함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불교계는 수천년간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지켜왔다. 봉은사 토지 환수는 수천년을 지켜온 민족문화유산이 특정인과 정권의 강압에 의해 침탈당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역사문화가 일부 개발논리로 없어진다면 이는 5000년 역사가 없어지는 것으로 소송은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1973년 영동지구 도시계획 용도지역 계획도와 봉은사 일주문 추정위치.



조계종 집행부 소임자 스님 50여 명은 11월 1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한 참회와 성찰의 1080배 정진’에 나섰다.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집행부 스님들 ‘정청래 사태’ 참회

11월 17일 조계사서 ‘참회 · 성찰의 1080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폄훼한 데 대한 불교계 공분에도 사과하거나 참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계종 집행부 스님들이 먼저 참회하고 성찰의 자세로 전통문화 보존계승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 집행부 소임자 스님 50여 명은 11월 1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한 참회와 성찰의 1080배 정진’에 나섰다.

스님들은 정진에 앞서 발원문을 낭독하고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에 무지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필부의 망언일지라도, 이 일은 오늘날 한국 불교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성적표”라며 “문화유산이라는 선대의 업적에 의지하느라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근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불교 문화를 창조하고 지혜와 자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노력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라고 참회했다.

스님들은 △‘정청래 사태’와 관련한 안내자료 발송 △각종 공원에 편입된 사찰영역의 정당한 권리자로서의 통제와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정청래 의원의 불교폄훼 발언’에 대한 규탄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11월 16일 대구 동화사에서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정청래 의원 망언 규탄 현수막’ 게재에 나서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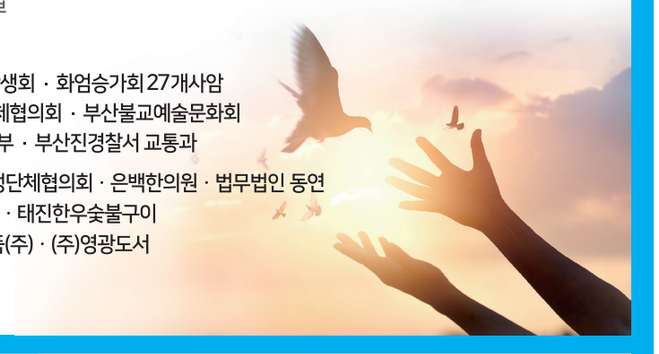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코로나19사망자, 자살과 교통사고 사망자
위 령 대 재 및
영가천도 무료접수 051)711-0700

자살과 교통사고 없는 살기좋은 부산 만들기
2021년 제4회 합동캠페인

| 일시 | 2021년 11월 27일(토) 오후 1시 | 장소 | 서면 영광도서 앞 광장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 주 관 | 부산불교교육대학 · 화엄승가회
|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문화체육관광부
| 증 명 | 서해 흥교 대종사
| 참 여 단 체 |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창회 · 부산불교교육대학 총학생회 · 화엄승가회 27개사암
부산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회 ·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 부산불교예술문화회
부산교수불자연합회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 ·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 협 찬 |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 화엄승가회 ·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 은백한의원 · 법무법인 동연
신창요양병원 · (주)부산스텐 · 수봉전자 · 우사부일체 · 태진한우숯불구이
해인의전 · (주)대호스톤 성우석건 · 석화원 · 우정약품(주) · (주)영광도서
| 주관방송사 | BBS 불교방송



전국 최초 최고 명품 교육기관
부산불교교육대학
개교 40주년



2022년 신입생 大모집
입학식 : 2022년 3월 7일(월) 오후7시

개교40주년 기념 특별과정
■ 지안스님의 〈법화경〉 강설 (6개월, 목 / 유튜브 강좌 병행)

자격증 취득 과정
■ 불교문화학과 (6개월 / 김춘식 교수) 사찰문화재 중심 시청각 강의 및 현장답사
▶불교문화 포교사(수) (민간자격 등록 2018-000374) ▶불교문화 전문지도사(금) (민간자격 등록 2019-000629)

승려연수 인증교육
●2600년전 붓다의 깨달음을 현대의학으로 규명하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 제공
●8.22(월)~8.26(금) 5일간 13:30~16:30
●동국의대 해부학 교수 문일수(서울대학원 · 캐나다UNB박사)
●비대면 ZOOM 화상 교육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빌딩 5층
(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051-711-0700

“간절한 각오로 화두와 씨름하라”

진제법원 대종사, 신축년 동안거 결제 법어 내려

11월 19일 2000여 수좌, 선원서 안거 결제

조계종 수좌 2000여명이 전국 100여 곳 선원에서 일제히 신축년 동안거 결제에 들어갔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는 11월 19일 결제 법어를 내리고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진제 법원 대종사는 “우리의 인생은 오늘 있다가 내일 가는 것이기에 사람의 몸을 받은 금생(今生)에 생사윤회(生死輪廻)의 고통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금일 결제에 임하는 대중(大衆)들은 산문(山門)을 폐쇄(閉鎖)하고 회광반조(回光返照)하여 마음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각오로 화두(話頭)와 씨름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종사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화두를 내리고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 가운데 오매불망(寤寐不忘) 간절히, 화두의심이 뼈골에 사무치게 의심을 밀고 또 밀고 할 것 같으면 석 달 이내에 모두 다 견성(見性)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특히 “견성은 부처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선지식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선지식의 바른 지도를 받아서 바르게만 지어가면 일념이 지속되어 참의심이 시동이 걸리게 된다”며 “참의심이 한 달이고 일 년이고 흐르고 흐르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고 그러면 모든 부처님과 조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천하를 종횡(縱橫)하게 될 것”이라고 설했다.

각 선원에 방부를 들고 동안거 결제에 들어간 수좌스님들은 11월 19일부터 2022년 정월보름까지 치열한 정진을 이어간다.

송지희 기자

INDEX 조계종 종정 · 총림 방장 동안거 결제 법어 10면